

《세월》호참사와 《통일대박론》의 공통점

남조선에서 특대형사고인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때로부터 한달이 넘었다. 200여명의 동국 학교학생들을 포함하여 300여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이 참사로 하여 지금 남조선에서는 사망하는 자식들과 부모형제를 잃은 유가족들의 목성이 그칠새 없이 울려나오고있다.

《내 자식을 살려내라.》는 피라는 절구가 터져오르고 《박근혜가 책임져라!》는 분노한 함성이 남한의 거리마다에서 거대한 초볼로 라번지고있다.

이번 《세월》호참사는 돈밖에 모르는 황금만능의 남조선사회의 썩은 구조와 풍토가 초래한 필연적산물이다. 오직 리윤만을 추구하는 썩고 병든 사회에서 인간의 생명과 안전, 존엄과 가치는 애당초 설 자리가 없었다.

《세월》호는 《청해진해운》이라는 기업이 일본에서 근 20년 동안 운행해다가 수명이 다 된 중고선박을 수입하여 개조한 선박이었다. 중고선박을 수입한 《청해진해운》이 승객을 더 많이 태우기 위해 무리하게 객실을 증축하다나니 무게중심이 51cm나 높아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 배가 기울어졌다 다시 바로 서는 능력인 《북원력》이 떨어졌지만 기업측은 그와는 상관없이 운항해마다 돈을 많이 받는 화물을 초과하여 실었다. 사고당시 《세월》호는 승용차를 비롯한 각종 차량 백수십대와

1 000여의 집합 등 허용한계의 3배이상의 화물을 적재하였다. 특히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 배의 균형을 잡는데 꼭 필요한 물인 평형수를 적게 채워 배의 안전기준을 완전히 무시하였다.

《세월》호 출항당시 항구에 는 짙은 안개가 끼여 2시간나마 출항시간이 지연되었다. 《세월》호가 늦어진 시간을 메우기 위해 처음부터 전속으로 전진하다가 물살이 빠른 진도앞바다수역을 최고속도로 통과한것도 배침몰한인중의 하나였다. 늦어진 시간으로 인한 리윤감소를 우려한 기업의 물치각한 행위가 불려온 비극이었다.

《세월》호참사는 인간의 생명보다 돈, 리윤을 추구하는것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얼마나 허망하며 리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에서 《인간》은 한낱 비용과 도구에 불과하다는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침몰당시 승객을 내버린채 탈출한 배의 선장과 선원들의 행동도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고 있다.

《세월》호는 인건비절감을 위해 대부분의 선원들을 단계적 약식으로 채용하였다. 승객들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선장 역시 적은 월급을 받는 1년계약직이었으며 조라수 3명을 포함하여 선원들도 대부분 6개월~1년 기한의 계약직이었다. 언제 사에서 해고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에게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바라

는것은 무리한 일이었다.

승무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또한 문제였다.《청해진해운》이 지난해에 선원안전교육비용으로 쓴 돈은 고작 54만여원, 1인당 4 000원정도였다. 반면에 광고선 전비로는 그 400배가 넘는 돈을 썼는가 하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접대비에도 엄청난 돈을 썼다고 한다.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구조작전이 제대로 안되고 늦어진것도 다 돈과 얽혀있다.

남조선해양경찰은 침몰현장과 가까운 곳인 전라남도 목포와 완도에 6개나 있는 해양구조전 물기업들을 배제한채 경기도 관교에 위치한 민간업체 《언딘》에 구조와 관련한 독점권을 주었다. 그후 《언딘》의 회사간부들이 해양경찰과 인적관계로 얽힌 기업이라는것이 밝혀지고 결국 적지 않은 액수의 구조비용을 독차지하려는 단 하나의 기업에 특혜를 준것 또한 만능돈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오직 돈을 바라고 벌리는 구조 활동에서 어떻게 인간의 생명을 기대할수 있겠는가.

《언딘》이 자기 회사 소속이 아닌 다른 민간장수부들의 구조를 해경과 함께 가로막고 저들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것은 실종자 유가족들의 증오와 격분만을 불러일으켰다.

이밖에도 《청해진해운》이 정

식 직원이 아닌 임시직승무원에게는 장례비를 지급할수 없다고 하였는가 하면 이동통신기업들은 사망한 승객들이 사용하던 사전 화기봉사를 해체할 때 위약금을 내라고 하여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등 돈밖에 모르는 자본가들에게는 인간의 존엄도, 양심도, 체면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기에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언론들까지도 이번 사고를 《인간의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풍토가 불러온 인재》라고 일침하게 평가하였던것이다.

총체적으로 남조선에서 벌어진 이번 참사는 돈, 리윤추구가 불러온 비극이며 돈에 의해 모든것이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결국 일어날수 밖에 없는 일이다.

돈에 대한 탐욕이 초래한 《세월》호참사를 생각할 때 올해에 들어와 남조선에서 요란스럽게 울려나온 이른바 《통일대박》라평과도 비교하여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대박》이란 《희재》, 《행운》이라는 뜻을 가진 남조선특유의 표현이다.

통일이라는 성스러운 민족사적목표에 《대박》이라는 말을 붙이는것자체가 우리 겨레의 통일위업실현투쟁에 대한 모독이 아닐수 없다. 돈으로 모든것을 유혹하고 돈이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저렬하고도 추악한 속물적 군성이 진하게 배여있는 《통일대박》라평은 《통일대박론》의 제창자인 박근혜의 인간됨과 지

적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조국통일은 남조선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전국적법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숭고한 위업이다. 조국통일문제의 이러한 본질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통일을 도박군의 심리를 가지고 대하는것은 돈밖에 모르는 사회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그들의 세계관의 한계라고 볼수 있다.

박근혜의 본을 따라 온갖 어증이며증인들이 《통일비용》이니, 《통일채원》이니, 《통일수실질소득》이니 하는것들을 자기만에 계산하느라고 분주히 수판알을 튕기는것을 보면 가소움을 금할수 없다.

보수패당의 통일문제에 대한 그렇듯 속된 관점과 태도가 돈을 위해, 리윤을 위해 수백명의 무고한 생명을 차디찬 날바다속에 수장시킨 《청해진해운》의 행동과 무엇이 다른가.

돈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세월》호참사와 《통일대박론》.

결국 남조선사회의 자화상이라고 할수 있는 《세월》호참사는 그러한 극대형비극을 몰아온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제창하는 《통일대박론》의 진면모를 더욱더 만천하에 드러내보이였다.

본사기자 김 절 민

체제대결의 흥심을 드러낸 전쟁선언

얼마전 피괴합동참모본부가 《제4차 합동성강화대토론회》를 열고 《제4세대전쟁》개념을 적용한 이른바 《통일을 위한 대북5단계군사전략》이라는 것을 공개하였다.

그에 의하면 《통일을 위한 대북5단계군사전략》은 전쟁개시와 함께 특수부대를 공화국에 침투시키고 현지 《우호세력》과 함께 내부에 혼란을 조성하는 단계, 공화국의 핵과 미사일 등을 제거하는 단계,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우호세력》과 연결해 자유화지역을 확대하는 단계, 주민통제와 사회기반시설을 복구하는 《안정화단계》,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막기 위한 《반향세력》 제거단계로 구성되어있다고 한다.

공화국과의 포괄적인 군사적대결, 체제대결흥심을 드러낸 전쟁선언이 아닐수 없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북남사이에 《통일을 위한 군사전략》이란 곧 전쟁을 의미할뿐이다.

이번에 박근혜당은 그 무슨 《5단계군사전략》이라는것을 공개함으로써 공화국을 불의에 침공하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

그동안 박근혜당이가 《신퇴》, 《드레퓔선언》이니 하며 마치 북남관계와 통일에 관심있는척의 놀아했다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하지만 이 모든것이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가리우기 위한 한갖 기만에 불과하다는것이 더욱더 명백해졌다.

다 아는것처럼 오늘 박근혜

패당은 최악의 통치위기에 처해있다.

《세월》호참사로 인한 민심의 분노가 마침내 대대적인 반《정부》, 반박근혜투쟁으로 번져지고있다.

바로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박근혜패당은 북에 대한 군사적도발책동에 매달리려고있다.

얼마전 《무인기사건》 조작에 이어 감히 《없이저야 할 나라》니 뉘니 하며 공화국을 걸고는 피괴국방부 대변인이라는자의 망발이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하기에 남조선언론들도 《국방부가 필요없이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북을 자극하는 안보장사를 하고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북침도발과 동족대결로 풍전등화의 신세에 놓인 저들의 가련한 신세를 견져보려는 박근혜당이가야말로 민족의 제앙거리가 아닐수 없다.

박근혜패당은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알고 덤벼야 한다.

《전시작전통령권》마저 없는 미국의 한갖 식민지교육군에 불과한 오합지졸의 무리들이 그 무슨 《5단계군사전략》이니, 《제4세대전쟁》이니 하는것부터야 웃음거리이고 하루강이지 범 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는 격의 어리석은 판관이 아닐수 없다.

박근혜패당은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그 순간이 곧 자멸의 순간이라는것을 알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박 절 남

반통일세력이 몰아온 정치적라살

남조선의 전 《대통령》이었던 로무현이 사망한 때로부터 5년이 되었다.

알려진것처럼 로무현 전 《대통령》의 비국적인 사망은 그 어떤 우연적인 요인에 의한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지밀에 민족자주,련북통일기운이 급격히 고조되고 진보개혁세력이 장성하면서 제 국도의 불안과 위기를 느낀 리명박패당이 의도적으로 감행한 정치적라살이며 통일민주세력을 강그리 란 암살살하기 위한 계획적이며 파쑈적인 음모가 빚어낸것이였다.

6.15통일시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매도하면서 권력의 자리에 오른 리명박패당은 10.4선언에 시명한 로무현을 눈에 둔 가지처럼 여기면서 어떻게 하나 그를 정치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장해버리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2008년 11월부터 리명박의 지시를 받은 남조선검찰은

로무현의 형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그의 친구였던 박연차 《태광실업》사장, 측근이었던 민주당(당시) 의원들과 제임당시의 청와대비서관들, 부인과 아들, 딸, 조카사위, 처남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소환조사하면서 그에게 압박을 가했다.

심지어 그를 공개적으로 불려내다가 모욕을 주는 등 2중3중의 심리적, 육체적이고 통을 가했다.

결국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몰아간것은 다름 아닌 리명박과 그의 하수인 남조선검찰이라는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여론의 일치한 점자이다.

그가 사망한 날에 청와대의 홈페이지에는 《리명박씨 추하합니다.》,《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등으로 라살행위 의 장본인인 리명박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수백건이상의 글이 울랐으며 《한겨레》를 비롯한 남조선의 수많은 언론들은 《현 〈정권〉이 만든 최대의 비극》, 《비렬한 정치적라살》이라고 사건의 진상을 고발하였다.

전국언론로동조합을 비롯한 단체들도 《MB 〈정권〉과 검찰, 조종층의 유착으로 인한 로무현 전 〈대통령〉의 라살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청문회》를 열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조선보수패당은 그가 사망한 이후에도 남조선인민들의 련북통일기운이 높아지고 저들에게 불리한 정치적환경이 조성될 때마다 로무현과 관련한 사건들을 만들어내어 유가족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고통을 강요하였다.

있지도 않는 《로무현차명계좌》라는 명목하에 생전에 그가 조성한 《비자금》을 들춰내다고 하면서 명예를 또다시 훼손시켰는가 하면 지난 《대통령선거》때에는 그가 북남수뇌소방성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면서 끝까지 물고늘어지는 비렬한짓도 서슴지 않았다.

그가 당한 정치적라살과 사후에도 계속된 그에 대한 박해는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어 저들의 나쁜한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동족대결광신자들의 정체를 낱날이 드러내보이고있다.

그러나 남조선보수패당은 오산하고있다.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발악으로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우리 겨레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6.15통일시대의 진전을 가로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통일분자, 동족대결세력의 죄행을 반드시 결산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명 성

최근 남조선에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부호전세력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20일 남조선해군장관들은 북측의 서남해상수역에서 정상적인 경계근무를 서는 공화국과의 합선들에 무작정 총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였다. 이보다 앞서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은 미국가정보국국장을 끌어들이고 그 무슨 《핵위협》에 대비한 《대북공조》를 모의하였다. 그런가하면 남조선군부는 이날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기간중에 미국,일본과의 《군사정보교류각서》를 체결하기 위한 미국,일본과의 국방장관회담을 벌리기로 하였다.

날로 무모해지는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은 외세에 빌붙어 동족대결을 추구하면서 조선반도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 각계 단체들이 18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광주민봉기 34돐을 기념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참가자들은 자주,민주,통일을 념원하여 피흘려 싸운 광주의 봉기자들과 날마다에 무참히 수장된 학생들을 추모하였다.

발언자들은 남조선의 력사는 서글프게도 죽음의 문화

외세와의 《공조》로 얻을것이란

정세를 악화시키는 용납 못할 반민족적범죄행위가 아닐수 없다.

다 아는바와 같이 외세를 등에 업고 공화국을 해치려는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무분별한 전쟁소동은 지금 국도에 이르고있다.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끝났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벌어지게 될 《울지 크리덤 가드선》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하여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벌리는 각종 북침전쟁일습소동으로 말미암아 북침전쟁에 맞춘 시한의 시침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남조선해군장관들이 공화국의 서남

해상수역에서 북의 해군함정들을 향해 감행한 군사적도발소동은 그렇지 않아도 엄중한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정경으로 더욱더 치닫게 하고 있다.

이것도 성차지 않아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라는 어리석은 야망밑에 공화국을 먹여보냈다고 미국은 물론 제침의 기피만 노리는 일본까지 등에 업고 북침전쟁을 현실화하려 하고있다.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일면파의 그 무슨 《군사정보교류각서》를 체결하려고 하는 범죄적책동이 그 단적실례이다.

조선민족의 피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상상도 못할 죄악

《유신》으로 되돌아가려는 현 《정부》의 역사적죄행을 막아야 한다

남 조선 각계 단 체 들 이 주 장

로 얼룩졌으며 국민은 지금까지 생명정지의 풍조속에서 살아왔다고 개탄하였다.

력대 독재 《정권》들을 이은 박근혜 《정권》은 국민을 지배하는 구조로서 권력유지를 위해 민중의 목숨따위는 언제든지 죽일수도 버릴수도 있는 사악한 《정권》이라고 단죄하였다.

이번 《세월》호사고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성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난하였다.

집권자가 보여준 무책임한 행위는 무엇이라고 말할수 없다고 하면서 사고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장본인은 응당한 징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16일 남조선법원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1969년 《유신》독재 《정권》이 민주인사들을 《국가전복 및 내란》음모에 걸고 구속처형한 사건을 말한다.

이번에 남조선법원은 사건피해자들이 《중앙정보부》에 의

해 오랜 기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폭행과 고문 등 각종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허위자백을 하게 된 사실과 사건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데로부터 이들 에게 무죄판결을 내리게 되었다고 한다.

과거 《유신》독재 《정권》시기 《간첩사건》이라는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어처

모두가 다시 일어나 국민

의 생명은 안중에 없이 권

력만을 탐내어 《유신》으로 되돌아가려는 현 《정부》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육체적으로 시달리고있다.

문제는 박근혜 《정권》에 의해 이와 같은 피의 력사가 또다시 되풀이되고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남조선에서 파문을 일으키고있는 그 무슨 《내란음모사건》이니, 《서울시

공무원간첩사건》이니 하는 것들이 바로 그렇다.

하지만 이 사건들역시 《중앙정보부》의 후진인 정보보원에 의하여 꾸민 날조라고 하는것이 낱날이 드러나고 있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의 통일애국단체들이 《리적》의 루명을 쓰고 범죄시되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보안법》의 회색물이 되어 철창속에 끌려가고있는것이 오늘 남조선의 비참한 현실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박근혜패당을 가리켜 《퇴살아나는 유신》독재의 망령》, 《현대판마녀사냥》, 《유신》독재에로의 회귀》등으

로 단죄규탄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박근혜당이가야말로 남조선전역을 피로 물들이며 파쑈와 독재를 일삼아온 《유신정권》을 통가하는 모략집단, 파쑈장제무리이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유신》부활책동에 매달리는 박근혜패당에게 반드시 준엄한 철추를 내리고야말것이다.

전 절 호